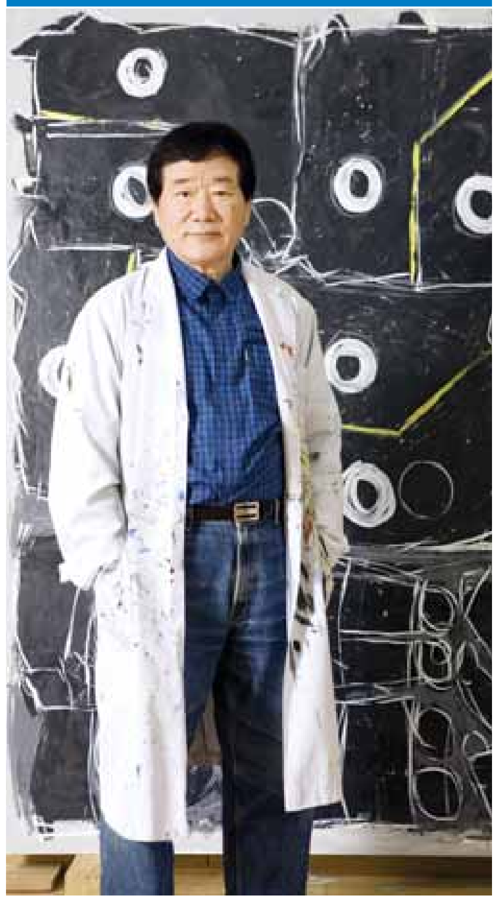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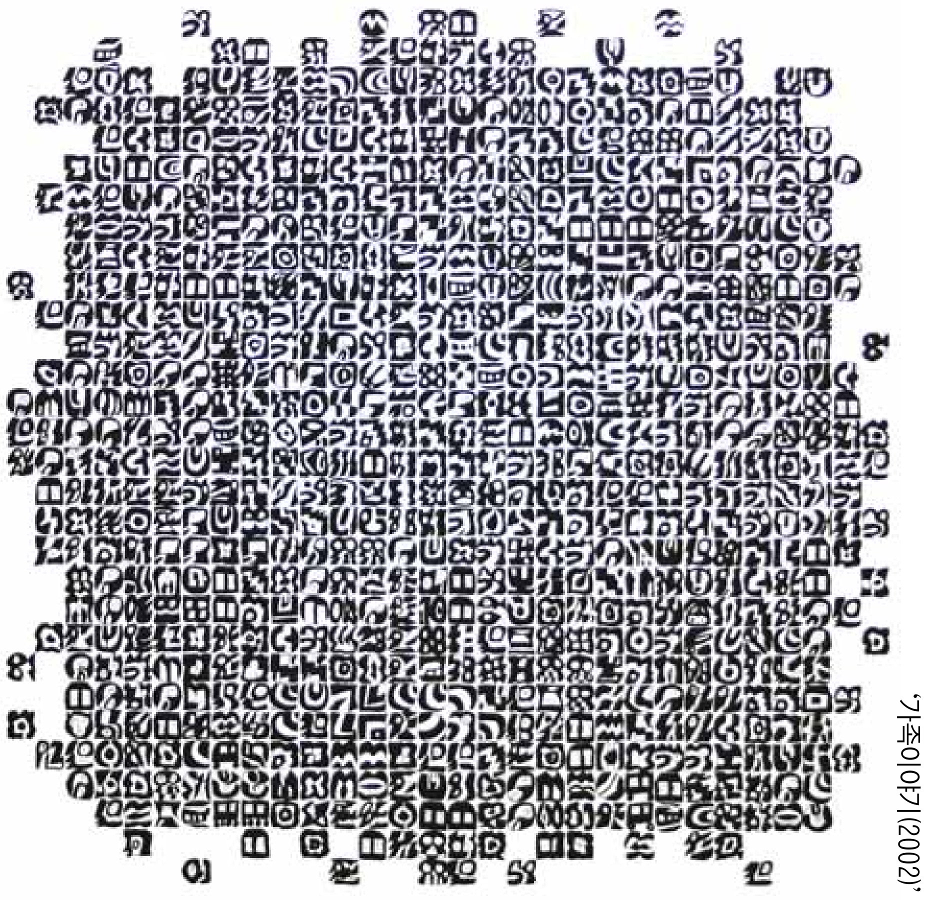
# “작가로 돌아오니 자꾸 욕심이 생기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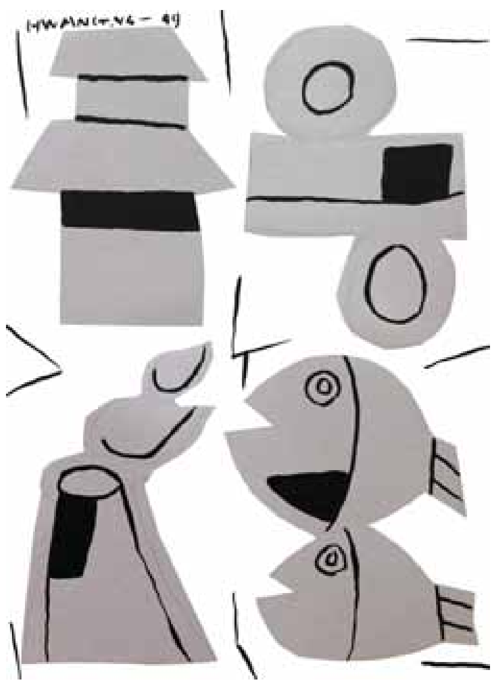
## 황영성 뉴욕서 15년만에 개인전



### 28일~7월 24일 갤러리 슈츄킨
### 화려함 절제…단색 계열 작품
### 10월엔 중국 상하이서 전시회



‘가족이야기’(2002)



‘가족이야기’(1999)

황영성(74) 화백은 지난해 8월 말 광주시립미술관 관장직을 내려놓고 평범한 작가로 돌아왔다. 행정가가 아닌 작가로 보내는 시간은 모처럼 만의 휴식 같았다. 매일 작품을 구상하고 화실에서 붓을 드는 시간이 편안했기 때문이다.

18일 만난 황 화백은 기운이 넘쳐났다. “작가로 돌아오니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되살아난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작가로서의 새로운 욕구는 황 관장을 현대미술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으로 이끌었다. 그는 오는 28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2달간 뉴욕 첼시에 있는 갤러리 슈츄킨(SHCHUKIN)에서 ‘PAINTING BEYOND THE GRID’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지난 2000년 뉴욕 파슨스대학 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 이후 15년 만에 미국에서 개최하는 전시다.

“작업에 대한 욕심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다시 나를 돌아보고, 지나왔던 길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싶다. 아직도 전시회를 열 때면 설렌다. 항상 전시는 작가에게 모험 같은 것이다.”

이번 전시는 큐레이터 샘 바더윌(Sam Bardaouil·레바논)과 틸 펠라스(Till Fellrath·독일)가 기획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카타르 도하 아랍현대미술관(Mathaf) 개관전을 기획했고, 현재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본관 전시를 준비 중이다.

황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작업한 작품 38점을 선보인다. 특히 화려한 색의 사용을 절제하고 회색과 흰색, 검은색 등을 주로 사용해 그린 단색 계열의 작품들이다. 흰색과 검은색만으로 만들어내는 긴장감이 돋보인다.

전시기간 뉴욕에서는 최근 세계 무대에 한국 단색화 열풍을 가져온 이우환 화백(지난 14일 오픈)과 박서보 화백(오는 28일 오픈)의 전시가 함께 열린다.

국내 전시에서는 좀처럼 선보이지 않았던 드로잉 작품도 선보인다. 그는 평소 “드로잉은 작가의 밑바탕”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황 화백은 “색상이 다양한 작품이 아니라고 해서 색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며 “흰색과 검은색도 하나의 색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색만으로도 충분히 역동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를 앞두고 그는 1980년 9월 처음 뉴욕 무대에 섰을 때를 떠올렸다.

“당시 윤중식, 최영림, 임직순 선생님 등 나보다 한참 선배들과 함께 참여했었다. 그때 초가집 마을 등을 회색 풍으로 그린 작품을 전시했는데 뉴욕 전시장에 들어서니 참 부끄러웠다. 그런데 그게 뉴욕 신문에 가장 크게 나왔다. 국내 작가들이 주로 초상화나 정물화를 그리던 때였는데 내 작품이 그와 달리 한국적인 정서를 품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황 화백은 그 전시를 계기로 서울 예화랑과 현대화랑에서 잇달아 전시회를 가졌고, 작가로의 입지를 굳혔다.

그의 작품은 한국적인 감성에 서구의 추상적인 느낌이 더해져 완성됐다. 추상적이고 기호화된 화법을 통해 전하는 ‘가족 이야기’ 연작은 황 화백의 독자적인 화풍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황 화백은 “그 질문은 나도 나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다”고 대답했다.

“‘가족’ 등을 꾸준히 작업할 계획이다. 가족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과 연관된 주제다. 단 ‘나의 전쟁’이라는 주제도 다뤄보고 싶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시대와 삶과 어떻게 부딪히며 살아왔는지를 다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6·25 전쟁, 5·18 광주항쟁 등도 있었다.”

황 화백은 오는 10월에는 중국 상하이 히말라야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또 큐레이터들과 파리 전시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스스로 세계 무대에 도전을 조금 더 빨리 했어야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지역 작가들이 광주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한다. 대비하고 공부해야 한다. 죽으라고 열심히 작업도 해야 한다. 또 생각해야 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윤상원 열사 기념극
## 시민 배우와 함께

### ‘오월의 노래’ 22·23일 광산문예회관

시민배우가 함께 만들어가는 오월 연극.

광산구가 제작한 윤상원 열사 기념극 ‘오월의 노래’가 22일(오후 7시30분), 23일(오후 5시) 광산문예회관에서 공연된다.

‘오월의 노래’는 광산구 임곡동 출신으로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약했던 윤상원 열사를 기리는 작품이다. 지난 2003년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제목으로 공연되며 화제를 모았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은 들불야학에서 활동한 노동운동가 고(故) 박기순 열사와의 82년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다.

올해 역시 공모를 통해 선발된 13명의 시민 배우가 놀이패 신명(대표 오숙현)의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극본과 연출은 마당극 연출가인 박강의 씨가 맡았으며 올해 공연에서는 배우들의 내레이션과 노래로 지난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로한다.

광산구청 홈페이지(gwangsan.go.kr) ‘새소식’란에서 관람신청을 할 수 있다. 공연은 관객이 자발적으로 관람료를 내는 ‘감동후불제’로 운영하고, 모금 전액은 문화소외계층에 전달된다. 문의 062-960-82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의 시간

정선휘 작 ‘어둠을 가고’

### 롯데갤러리, 6월 16일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과거 광주는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 광주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광주를 바라보고 있을까.

광주 롯데갤러리가 오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우리의 삶터, 즉 광주를 되돌아보는 ‘광주 프롤로그’전을 연다.

전시에는 김경란, 김보수, 박인선, 박화연, 안희정, 정선휘, 최요안 등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20~50대 작가들이 참여, 각 세대가 바라보는 광주의 모습을 보여준다.

일상에서 버려진 물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작업을 해온 김경란 작가는 광주에서 생산되는 막걸리의 페트병을 활용해 화려한 꽃무더기를 만들어낸다. 시금털털하면서 서민의 애환으로 대변되는 막걸리병이 하얀 꽃으로 변신한 것이다.

다큐 사진작가 김보수 작가는 홀로 고개를 숙인 채 한끼 식사에 열중하는 사람들, 소비재의 화려함이 넘쳐나는 공간을 무던하게 즐기는 이들 등 광주의 하루를 담았다.

광주라는 장소성에 집중하는 박인선, 안희정, 정선휘의 작업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 “도시 속 건물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인간의 자화상이다”고 역설하는 박인선은 광주의 재개발 단지 내 오래된 건축물들을 다룬다.

광주의 시간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선휘는 2015년의 수박등(월산공원)을 그려냈다. 한편 지역이 수반하는 정신성에 천착한 최요안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표현했다. 문의 062-221-1807~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